

수행은 하심에서 시작되고 포교는 눈높이 맞춰야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 (사)자비명상 마가 스님



27년전 청담 스님의 상좌와 손상좌로 스승과 제자가 된 현성 스님(좌)과 마가 스님. 서울 현성정사에서 새 아침 법담을 나누며 불자들이 '새해에 다짐한 진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했다.

“큰스님 계십니까?”
 마가(摩迦, 자비명상이사장) 스님이 은사 현성(玄愷, 75)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현성정사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은사께서는 외출 중이었다. 종무소에서 “안양교도소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추운 날씨에...’ 생각해 보니, 은사께서 안양교도소를 다니신 세월이 35년이다. 출가하여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전부터의 일이 아닌가? 새삼 가슴이 뭉클했다. 포교와 교화를 향한 은사의 행보를 받아 내야 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 서울 남산에서 열고 있는 견기명상을 35년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 염주를 굴리듯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는데 은사께서 오셨다는 기별이 왔다.
 “추운데 뭣 하러 왔다? 설에나 다녀가면 되지.”
 삼배를 드리는 제자를 바라보는 은사의 눈길은 그윽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
 그렇게 마주 앉은 스승과 제자는 잠시 묵언으로 존경과 자애의 마음을 교감 하는 듯 했다. 제자가 여쭙었다.

—임진년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웃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하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하는 법. 행복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새해는 흑룡의 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봐. 용은 선행과 공덕을 응호하는 역할을 하니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길운이 깃드는 해가 되길 바라. 모두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도리를 잊지 말고 복 짓고 공덕 쌓는 한 해가 되시길...”
 —네, 불교계도 더욱 안정되고 더 많은 일로 사회를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지. 은사 스님 청담 대중사 계서는 늘 ‘동국대 발전이 불교 발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종도들이 화합하고 총무원이든 종립대학이든 모든 관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그게 곧 불교발전이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이야.”
 —(기자) 마가 스님께서도 불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심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행복을 가져오는가? 불행을 초래하는가? 늘 깨어 있으면서 매순간 자문(自問)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의 행동, 말, 생각이 자신의 미래입니다. 인생은 자신만이 주인공이니까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국민과 위정자들의 생각이 따로 갈라지는 느낌도 듭니다. 국가와 국민은 둘이 아닐 텐데, 원용화합을 위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당나라 때의 도립선사는 고을 태수로 부임한 백락선에게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여든 살 먹은 어른이 행하기는 어렵다’고 일갈했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나는 늘 한 가지를 주문해. 싸우지 말라고. 정치란 대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나 대립과 싸움은 달라.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의 묘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지.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도 가능하고. 그런데 대립에서 묘수를 찾는 게 아니라, 대결로 몰고 가 싸움판을 만들어 국민과 민심을 분열시키는 일이 허다해. 그러니 정치인 좋

아하는 국민도 줄어드는 거야. 스스로 빠져 나오지도 못할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움질을 해대면서 그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 떠들면 누가 믿겠어? 언젠가 대통령 후보들이 다 참석한 법회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부처님이 당선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당선시켜 주느냐?’ 하고 물었어. 그리고 말했지. ‘당신들을 당선 시키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요즘 국민들은 여러분 보다 훨씬 앞선 생각을 한다’라고. 후보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박수도 한참이나 이어졌어. 정치인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은 투표라는 주권행사를 분명하게 해야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몇 백층짜리 빌딩 많이 지으면 잘 한 겁니까? 국민을 화합시키고 원용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들이 적지 않으니 잘 하신 것’이라고 대답했어. 국민을 통합하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야. 국민이 분열되면 나라도 사라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해.”

—(기자) 도선사 주지를 12년 하셨으니 한 해에 군법당을 하나씩은 세우신 셈입니다. 군포교를 하시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협조를 잘 해 주었고 불자들이 호응이 컸던 겁니다. 군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법당만 지어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찾아가서 위문품을 전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종단에 군중교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위 사찰의 지속적인 후원과 원력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에피소드가 많습디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군포교의 기복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부대에서 법당 불사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군법사가 도선사로 찾아가 눈물을 푼뚝 흘리며 울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스님께서 오셔서 기공식 한 것이 몇 달 전의 일인데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 할 인부들이 부대 밖에 잠자리를 구해두고

선인선과의 가르침 잊지 말고
 복 짓고 공덕 쌓는 한 해가 되길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해 맞아 세운 계획과 발원
 진심 흔들리지 않으면 이뤄져

일하려고 하는데 사단장님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 출입을 안 시킵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 사단장님이 다른 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군단급에서 주최하는 종교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군단장님이 저와 잘 아는 분이었어요. 마침 아까 말한 그 사단의 사단장님이 들어오면서 나를 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단 법당 준공식 날짜를 받아 왔거든요’라 했더니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공사도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준공식 날짜를 받아 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 말투가 좀 통명스러웠던지 옆에 있던 군단장님이 무슨 일이라고 묻기에 ‘여기 사단장님에게 들어 보시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로 법당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부대 사단장님이 찾아와서 자신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소개한 뒤에 ‘부대에 법당을 좀 큼직하게 지어야겠는데 도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물더군요. 내심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껌뚝을 물었더니 ‘사실 최근 부대 안에 커다란 교회가 신축되었는데 그 옆의 법당이 작고 초라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신도들이 화장실인줄 알고 들어가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삼광사의 풍경소리로 세상은 자비로워집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주 지 류 화 산 스님

총무 유대명스님 교무 허자룡스님 재무 김도진스님 노전 김탄성스님

교 문 김길두 김동필 홍영표 이중화 전무수 김형대 장석근
 신도회장 김석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총무위원 이철경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김상준, 부학재, 김영숙
 사업위원 주우현 기획위원 윤태웅 복지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최주덕
 문화위원 이봉영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기법회 - 매월 1, 2일 오전 10시 ■ 청년회법회 - 매월 1일, 3주 일요일
 ■ 학생회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어 린 이 회 - 1,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삼광사 산아교육기관
 부산금강불교대학 · 삼광한글학교 · 삼광한문학교 · 삼광다도대학 · 광명유치원 · 삼광 서예교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TEL (051)808-7111~5 FAX (051)803-1332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노력 없이 얻어지는 행복 없다

는 일까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맘이 편하지 않아 스님을 찾아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두 말 않고 법당 건립을 약속했고 '커다란 교회'가 잘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법당을 지었습니다. 허허허."

-무슨 일이든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포교는 군인들에게, 어린이포교는 어린이에게, 노년층 포교는 어르신들에게 어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해 봐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강의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 눈높이 포교가 아니면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야.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라는 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이듯이. 너의 강이 어렵고 싫증나는데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 많이 듣게 하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야지."

-[기자] 마가 스님 강의는 인기가 대단합니다. "눈높이가 맞았다는 얘기가 있지."

화합과 상생의 묘 찾은 것이 정치

국민들 주권행사 제대로 행사해야

이기려는 마음에는 탐욕 들어차

지려는 사람은 '텅 빈 종만' 누려

청담 스님 뜻 따라 군포교 시작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교회에 일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포교를 하시면서 겪으신 일들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아직 듣지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막상 말하려면 할 것이 없어. 도선사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당시 유아원)이 도봉동에 있었잖아? 주지할 때 매일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그날은 나도 꼭 가서 아이들을 만났어. 이 유아원이 인기가 있어서 정원이 120명인데 170명이 입학신청을 하곤 했지. 그 동네가 그다지 부유한 곳이 아니라서 저소득 부모들에게는 원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먼저 교육비를 들고 와서 낸다는 거야. 아이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절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시주하는 마음으로.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면 쌀을 한 포대씩 주었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도선사 유아원이 일류유아원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야. 청소년교회연합회의 경우 파라마타가 생기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160개가 넘는 청소년 단체 가운데 유일한 불교청소년 단체였어.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모든 일에는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지. 일을 하다보면 오해도 생기고



1999년 현성 스님의 환갑때 농촌 발행을 기념해 찍은 사진. 가운데가 현성 스님, 맨 왼쪽이 마가 스님

화도 나지만 진심을 믿고 인욕 하는 가운데 다 풀려 가는 법이야."

-노스님 청담 대종사께서 '인욕보살'로 통하셨습니까?

"그렇지. 가까이서 모셔 본 사람은 그 별호가 헛말이 아님을 알지. 나도 젊어서부터 늘 '지고 살이라' 하는 가르침을 받았어. 내가 성격이 좀 불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돌아와 보면 '지고 산 것'이 '이기고 산 것'임을 절감해. 이기려는 마음에 쌓이는 탐욕과 분노와 거짓과 기만의 무게는 태산보다 더하겠지. 하지만 지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쌓일 것이 없어. 늘 비어 있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텅 빈 종만'의 열락이겠지. 그러니 결국에는 이기는 삶이 되는 거야."

-큰 스님께서서는 새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는 일 계속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큰 복이지. 새로운 일 만들 생각은 없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

보는 것으로 족해."

-저 역시 그간 해 온 일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뤄질 길 바랄 뿐입니다.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마음 치유사'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또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명상순례 여행' 제안도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래,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이 전법의 기본이지. 잘 하고 있지만, 항상 밝은 기운을 전해주도록 해라."

찾잔의 차가 다 식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던 스승과 제자의 정담(情談)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끝났다. 현성 스님이 길까지 나와 일행을 배웅하고 들어간 뒤, 마가 스님은 "오늘따라 큰스님 흰 눈썹이 더 빛나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글-임연태 논설위원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성 스님은... 경남 고성 출생.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 이듬해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부산 선암사에서 10여년간을 성만했고, 대울사 석암 스님의 법맥을 전수했다. 1980년부터 12년 동안 도선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진행, 천년고찰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불교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스리랑카 국립 프리베나대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감찰국장, 교육국장을 지내고 중앙종회의원(4선)과 청담학원 이사장, 동국학원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종정 표창을 4회 받았으며, 교정교회사업과 사회봉사, 교육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동백장, 모란장 등 3종의 훈장을 받았다. 현 도선사 부조실, 현성정사 주지, 청소년교회연합회 총재, 해명불교양로원 원장, 안양교도소불교위원회장,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 회장 등.

마가 스님은... 1985년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중앙승가대 복지학과 졸업. 1990년 북한암 선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성만. 미안마 마하시 국제선원, 프랑스 플럼빌리지 등에서 수행. 2002~2006년 마곡사 템플스테이 진행. 현재 중앙대 겸임교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남산에서 걷기명상 진행. 마음치유사 과정 개설 운영.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백척간두에서 걸어보라

아련한 추억이 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운동장에 녹목(助木)이 놓였다. 많은 어린이들이 처음 보는 운동기구라 운동 보다는 신기함이 발동하여 앞 다투어 오르내리곤 하였다. 녹목은 체조에 쓰는 기구로 기둥이 되는 튼튼한 나무 사이에 많은 가로장 나무를 고정시킨 것으로 몸을 바르게 하는 운동에 썼다.

지금 돌아와 보면 위험천만한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로장 나무를 오르려면 반드시 한 손을 놓아야 만이 오를 수 있는 일이다. 수중에 꼭 잡고 있던 가로장의 한 손을 과감하게 놓아야 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았건만 놓을 줄 알았다. 참 위대한 발견이랄 것도 없이 그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반복하였다. 수영을 할 때도 그렇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손은 뒤로 제쳐야 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진리를 깨달았다. 버리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더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와각지쟁(鰐角之爭)이라는 말이 있다.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싸운다는 말이다. 하찮은 일로 승강이 하는 것이나 혹은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을 이르는 말이다. 달팽이의 두 더듬이가운데 한 더듬이를 축(觸)이라 하고 옆의 더듬이를 만(蠻)이라고 한다. 달팽이 자체를 놓고 보아도 미미하기 그지없는데 연약하기 그지없는 더듬이를 제 몸에 붙어 있는 더듬이를 상대로 싸우다니 우직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이라고 치부할 밖에 별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달팽이의 분쟁과 별만 다를 것이 없다.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녹목에 오를 때를 회상해 보면 과감하게 한 손을 놓았으면 성인이 되어갈 수록 놀기보다 쥐는 것에 더욱 익숙해져 버렸다.

무문관 제46회에서 석상 스님은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걸어 나아갈까(百尺竿頭如何進步)'라고 말하고 있다.

한 두 척도 아닌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걸어 나간다는 말일까. 무지몽매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백 척 이란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생각이 멈추고 만다. 고저장단이나 시비곡직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선의 입장이다. 석상 스님이 말한 백 척 이란 비단 길이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범부중생은 연구에 집착한 나머지 고개를 설레설레 짓기 일 수이다. 다수의 공안은 연구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일생을 허비해도 공안의 노예가 되어 살 뿐이다. 그 속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오고간 나그네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실로 연구를 벗어나기란 말 같이 쉽지 않다.

리를 건너기에 불편하여 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공사를 마친 후 다리 이름을 불도교(不渡橋)라고 불렀다. 하루는 객승이 절을 찾아오다가 다리에 불도교라는 글을 보고 다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스님은 "이 바보야, 왜 서성거리고 있느냐. 댁님 건너오지 못하고." 객승은 "건너지 못하는 다리라는 데요. 어떻게 건너라는 겁니까?" 하더라는 일화가 있다. 이 경우야 말로 객승이 연구에 걸려 꼼짝 못한 사례가 된다.

선은 지식이나 학문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객승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만일 글을 몰랐더라면 거리낌 없이 다리를 건넌 것을 것이다. 버리지 않는 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 선이다. 비단 선에서 만도 아니다. 일상에서의 삶도 그렇다. 버려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고 그저 비어 있는 것은 공허한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비어 있음이아

지녀서 겪는 고통은 그칠 줄 모르나

놓아서 누리는 만족은 어디서나 충만

말로 현자의 소유다. 놓여 있고 채워진 것들은 범부의 소견에서 나온 어리석음의 산물이다. '모르는 것이 부처'란 말이 있는데 도리어 무식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식을 부인하는 것은 단언 아니다. 지식이 두루 갖추어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 분수를 안다면 백척간두에서 활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를 맞으면 집안 청소도 말끔히 하고 거실에 화분 하나라도 놓고 장식을 한다. 벽도 새 벽지로 도배를 한다. 장식할 때야 경비도 들고 육체도 피로하지만 이내 정신이 맑아진다. 집치장 못지않게 새해에 장식할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놓는 것이다. 놓으면 허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마련인데 그건 일순간의 일이다. 영원히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조건 없이 놓아 버리는 것이다. 자기도 놓고 권세도 놓고 가진 것도 놓기가 말 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서 겪는 고통은 그칠 줄 모르지만 놓아서 누리는 만족은 어디서나 충만하다.

우리는 들숨과 날숨에서 위대함을 배운다. 깊은 산 속에서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만 같다. 이 상태가 좋다고 계속 유지하려는 어리석음을 지닌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바로 비워야 만이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범 속에는 항상 비범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놓고 비우기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넉넉한 한 해가 될 것이다.

佛紀 2556年·壬辰年

새해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993-3161~3 팩스 : (02)993-3164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포교와 수행의 도량 세계일화 화계사

조실 송원 설정 대종사
회주 성광 대화상
주지 수암 화상
신도회장 한 대법성

사부대중 일동

신도교육

기본반	3개월 과정	화요반 : 3월, 9월 개강 일요반 : 6월, 12월 개강
불교대학	2년 과정	수요반/토요반
불교대학원	1년 과정	화요반/일요반
교양과정	각 3개월	토요반(천수경/예불받아삼경/의식)

행사일정
· 2월 5일(일) 오후 6시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서울 강북구 수유동 487 중무소 ☎ 02)992-1073 전승 02)990-1885 www.hwagyesa.org